

디지털 전환의 시대, 구조와 생태의 토대 위에서 건강 정의를 묻다

우리 사회에서 건강불평등은 더 이상 주변 의제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취약계층의 건강 위험을 극명하게 부각시켰으며, 기후위기와 지역 격차의 심화는 건강의 사회적 토대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돌봄의 위기와 플랫폼 노동의 확산은 생계와 재생산의 조건이 건강과 직결되어 있음을 구조적으로 가시화했다. 이러한 위기 국면 위에서 보건의료 영역은 또 다른 전환을 맞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헬스 기술은 의료 제공 방식과 돌봄 체계를 재편하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했으며, 효율성과 혁신이라는 언어 속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방향을 규정하는 기준처럼 작동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은 분명해진다. 디지털 전환은 건강형평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경로인가, 아니면 기존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재생산하는 기제인가?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국건강형평연구』 4호 특집은 ‘인공지능(AI)/디지털 헬스와 건강불평등’으로 구성하였다. 이상운의 연구에서는 디지털 헬스와 AI를 개별 기술이 아니라 하나의 사회-기술 체제로 보고, 민주적 거버넌스와 책임성 장치가 결여된 조건에서 기술 확산이 형평성 개선과 자동적으로 연결된다고 가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하였다. 김준혁은 소셜 돌봄 로봇(SCR)이 노동 대체 수단이 아니라 관계를 지지하는 사회적 보완재로 재정립되어야 하며, 돌봄 기술이 공공재의 틀 안에서 사유화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김예진 등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중 에이전트 기반 맞춤형 건강 피드백 시스템을 제안하고, 디지털 기술이 건강형평성 증진의 수단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구조적 조건을 분석하였다. 알고리즘 편향과 책임 전가, 접근성 격차 등 형평성을 제약하는 요소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설계의 문제가 곧 형평성의 문제임을 환기시켜주고 있다. 한채영 등은 보건의료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효과와 한계, 향후 활용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지민과 김경민의 연구에서는 디지털/AI 돌봄을 ‘돌봄 통치성’이라는 개념 틀 속에 위치시켰다. 효율성과 생산성의 논리에 가두어진 디지털/AI 돌봄에서 벗어나 돌봄 제공자와 대상자가 기술의 활용과 그 방식을 결정하는 민주적 구조의 돌봄 통치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와의 대담은 AI 시대의 시민을 ‘영향받는 자’로 재정의하며, 권리 기반 접근의 제도화와 더불어 기술과 시민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호는 기술 담론 아래 가려지기 쉬운 구조적 토대를 함께 조명하였다. 김현미는 생태 돌봄의 관점에서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이 건강불평등을 통해 계급·젠더·이주 지위에 따라 차별적으로 체현되는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인간과 비인간, 환경과 건강의 상호의존성을 이론적으로 재위치시키고, 돌봄을 사회적 재생산의 중심 원리로 재구성하는 ‘돌봄 전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Heller & Heo는 건강의 구조적 결정요인과 공동체 권력 구축을 다루며, 경제적 착취와 지역 불평등, 성별 권력 구조가 건강격차를 어떻게 재생산해왔는지를 분석하였다. 결국 건강형평성은 서비스 확충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자원의 배분 질서를 재구성하는 문제임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서구사회에 비해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한국의 주거권과 건강불평등에 대한 연구도 수록되었다. 박금령 등의 연구에서는 주거가 자산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형성하는 구조적 환경임을 강조하며, 주거정책이 왜 건강형평성 전략의 핵심 축으로 다루어져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 세션 논문을 통해 분석도구와 이론적 축적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강영호의 종설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건강불평등에 대한 설명틀을 역사적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각 접근의 한계와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건강불평등 설명틀 연구가 단순한 원인 규명을 넘어, 윤리적 판단과 정책적 개입 지점을 제시하는 실천적 학문으로 기능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익한은 실제 건강불평등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망률 지표의 분해 분석 방법으로 단계별 치환 알고리즘과 등치선 치환 분해법을 소개하였다. 특히 통계프로그램 R을 활용하여 해당 분해법을 실제 적용하는 방법을 예시 자료와 함께 설명하고 있어, 집단 간 사망률 격차나 동일 집단 내 시간에 따른 사망률 변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에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승윤의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진주의 서평은 알고리즘에 의해 조직되는 플랫폼 노동의 현실을 통해 연구자의 위치와 책임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건강은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자원과 권력의 배분 구조 속에서 형성된다. 노동과 주거, 환경과 돌봄, 기술과 권력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건강이 결정되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 역시 이러한 구조를 벗어나지 않는다. 건강형평성을 논한다는 것은 혁신의 수사를 넘어, 우리가 어떠한 관계 질서와 배분 원리를 선택할 것인가를 묻는 일이다. 『한국건강형평연구』는 그 질문을 축적하고 확장하는 학술적 장으로 꾸준히 자리하고자 한다.

2026년 3월
편집위원장 황종남